

멘토링을 활용한 회계학 수업에 관한 연구

이경락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A Study on Accounting Teaching using Mentoring

Gyeong-Rak Lee

Division of Business & commerce,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라는 변화된 회계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적 능력을 갖춘 회계전문가 및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회계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전통적 주입식·폐쇄적 교육은 더 이상 글로벌화된 회계환경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이 회계실무 현장에서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학습자간 또는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충분하고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회계교육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 주제어 : 국제회계기준, 전통적 교육, 창의적 교육, 멘토링, 회계기초 학습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for new suggestion on accounting teaching. Through this study, I expect accounting professional would take in new accounting circumstance (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nd make a decision on very complex business cases rationally. It has been proved that closed teaching skill can not cultivate global talented person who is adaptable to IFR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lso, we look forward to establishing an accounting education that is sufficiently controversial among learners, rather than traditional rote education.

• Key Words : IFRS, traditional teaching, creative teaching, mentoring, accounting basic learning

1. 서론

전통적으로 회계학은 체계적인 학습과 꾸준한 학습태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1]. 특히 글로벌화로 인한 경제주체간의 거래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초학습자들이 회계상 거래를 받아들이는데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상업계 고교나 대학에서 처음 회계학을 접하는 학생들이 회계학원론이나 재무회계원리 수업을 수강하면서 경험하는 학습장애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보

여진다.

회계학을 강의하는 교강사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 예를 들면, 회계학 교육개혁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2], 회계학 교육의 개선을 위한 연구논문 발표[3,4,5] 다양한 관점의 회계원리 교재 발간, 회계학 교육개선을 위한 분야별 연구모임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 파트너들은 대학 회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6]. 국제회계기준으로 회계환경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회계교육을 하고 있어 실무와의 괴리가

*Corresponding Author : 이경락(krlee@bu.ac.kr)

Received August 11, 2017

Accepted October 20, 2017

Revised September 24, 2017

Published October 28, 2017

크다는 것이다. 전통적 회계교육은 실무에서 발생한 거래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후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특정 경제적 사건을 처리하여 유용한 회계정보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회계담당자의 전문적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중심교육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회계교육개혁을 위한 대다수 연구들이 교육현황을 실태조사한 후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머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응력과 판단력을 지닌 학생들을 배출하는 새로운 교수법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멘토링을 활용한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회계학의 교육목적

2.1.1 형식보다는 실재를 이해하게 만드는 교육

회계교육에 있어 교육과정이나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일 것이다[7].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보면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를 인식할 때 법적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의해 측정·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 회계는 제한된 자원을 가진 정보이용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움으로서 자본시장의 효율화를 달성하는 주요한 인프라이다. 따라서 회계는 다양한 거래를 법적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전달해야 한다. 회계교육의 방향도 이러한 회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2 이론과 실무가 통합된 교육

회계학의 이론과 원칙들은 상당부분 실무에서 발전되어 귀납적으로 정립되었다. 따라서 회계학 교육은 강단에서 이론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코 현학적이거나 이론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학습은 배움 이전에 혹은 동시에 삶이다” 라고 피력한 사상이 듀이의 말에 가장 잘 부합되는 학문영역이 회계학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회계교육은 지식정보의 대량생산과 유통,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자격증 취득 목적에 국한된 피상적 학습, 이론 중심의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과정, 회계교육에 대한 철학부재, 난해한 회계이론에 대한 심사숙고 없는 학습자들의 편협한 학습방법, 공급자 중심의 주입식·획일적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회계현상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9].

2.1.3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국내 상장기업들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으므로 각 대학에서도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회계담당자가 과거처럼 정해진 규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결정해야 할 영역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에는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회계담당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거나 애매한 부분은 감독기관에 질의하여 응답받은 대로 처리하면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는 현 상황에서는 회계담당자들이 회계현상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당연히 대학의 회계교육도 과거처럼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과정을 거쳐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배양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회계학 전공자들이 실무를 처리해 나감에 있어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1.4 전문직업인으로서 인격을 갖추는 교육

회계분야의 직업적 특성은 크게 복잡한 지식체계, 공익에의 봉사, 일반대중으로부터의 신뢰 등을 들 수 있다. 회계업종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체계와 자신들만이 공유하는 독특한 언어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계전문직으로의 진입에는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전문교육이 있어야 한다. 또한 회계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회계전문직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책임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직업적 특성상 윤리적 가치가 상충하는 상황 속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도 많다. 국제회계사연맹에서 발표한 윤리규정을 살펴보면 공인회계사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윤리적 갈등문제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실을 공인회계사회 내에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회계업종은

직업적 전문성과 일반대중과 사회에 대한 공익적 가치관을 유지해야만 직업적 정체성과 신뢰성을 보장받게 된다. 따라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회계교육은 이러한 회계업종의 직업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2.2 회계학 학습의 심리적 접근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은 상호관계를 통해 완성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은 생각한대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행동한 대로 생각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회계학은 어렵다, 재미없다” 라는 생각이나 느낌은 조절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행동은 어느 정도 조절하고 통제함으로써 느낌이나 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회계학 학습의 전환을 위해 혼자서 학습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가급적 그룹별 스터디 활동을 권장하여 학습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인간의 생각과 느낌은 언어를 형성하고 그 언어는 다시 사고(관념)를 형성하게 된다. “회계학은 어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회계학은 역시 어렵다” 라든지 “회계학은 정말 재미없다” 라는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 언어는 또 “회계학은 정말 어렵고 골치아픈 과목이다” 라는 관념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예를 들면 혹은 여자아이를 계집아이라고 부르는 경우)은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리는 말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회계학 학습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수월하게 회계학적 지식과 논리를 수용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스터디 그룹에서 멘토와 다른 학습자들과의 활발한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 회계학적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학생도 있는 것이다. 회계학이 갖는 방대한 지식체계를 감안해 보더라도 혼자서 학습하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생각과 논점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법이 보다 유용한 방법이라고 보여진다. 흔히 하부루타식 묻고 답하는 학습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회계학적 지식을 체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홀로 학습법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장점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토론식 하부루타 학습법을 통해 학습자들은 소위 메타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10].

3. 새로운 회계학 교육모델을 위한 설계

3.1 학습동기 유발요인 도출

최근 회계학 교육개선을 위한 연구들은 대부분 실태 분석[11,12,13,14,15]에 치중해 있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 성과들도 실제 회계학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지만, 교육자와 학습자간 일대 일 또는 다대 일의 개별면담을 통해 학습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습동기 유발요인을 도출하는 질적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재무회계원리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전 질문항목을 다음과 같이 집단별로 도출하고, 학생별로 20분 정도의 면담시간을 가졌다. 개별면담 결과 학습자들의 학습 장애요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습동기 유발요인들도 도출할 수 있었다.

3.2 FGI를 위한 표본집단 모집

2016년 2학기에 재무회계원리 수강생(모집단 37명)중 그룹스터디(멘토링) 참여집단(5명)과 비참여집단(5명) 그리고 멘토링에 멘토로 참여한 학생들(5명으로 5개 그룹)의 회계학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Table 1>)

<Table 1> Subject Group

study group		5 mentors group
participation	non-participation	
Kim(1grade)	Park(1grade)	Kim(3grade)
Jeon(1grade)	Jung(1grade)	Yeo(3grade)
Park(1grade)	O(1grade)	Han(3grade)
Kang(1grade)	Yun(1grade)	Lim(2grade)
Park(1grade)	Yoo(1grade)	Lee(2grade)
5 mentees	5 students	5 mentors

멘토링에 참여하여 학습행동에 변화를 시도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학업에 대한 만족도, 이해도, 자신감을 비교하고, 회계학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3.3 사전 질문항목의 설계 및 면담실시

각 집단별(참여집단, 비참여집단, 멘토집단)로 사전질문 항목을 설계한 후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10

월 15일부터 11월 15일 동안 학생 1명당 20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Table 2> Question to the mentoring groups

1. What motivates you to participate in the accounting mentoring study?
2. What is the biggest harvest from Mentoring?
3. What was the hardest part on Mentoring?
4. There is something to improve in Mentoring?
5. What changes are made after the Mentoring?
6. What is the merit of debating study?
7. Are you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mentoring?
8. Do you want to persuade other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accounting mentoring? What would you say if you encouraged participation?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참여동기는 성적가산점, 회계기초보강, 성적향상이었으며, 주로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가진 학생들이었다.

<Table 3> Question to non-mentoring groups

1. Why did not participate in the mentoring?
2. What was the hardest part in accounting principles?
3. What was the best thing in accounting principles class?
4. What should be improved in accounting principles class?
5. How did you solve the difficult part in accounting principles class?
6. What if there is a change in thinking after accounting principles class?
7. Are you willing to participate in mentor next time?

<Table 4> Questions to the mentors

1. What motivated you to be a mentor?
2. What is the biggest achieved as a mentor?
3. What was the hardest part as a mentor?
4. The important part of the accounting basics?
5. What changes are made after the Mentoring?
6. There is something to improve in Mentoring?
7. Are you willing to participate in next time?

위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을 분석해 보면 먼저, 멘토링 참여동기는 가산점 부여, 회계기초 지식 부족, 성적향상이었다. 비참여집단은 어색한 분위기, 동아리나 대외활동 준비, 기초지식 부족으로 스터디 진행을 방해할 것, 자퇴

고려중, 스터디 그룹 구성 어려움, 참여시기를 몰랐음 등으로 주로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학우들이 많았다.

참여집단이 활동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성적 및 문제해결 능력, 이해수준 향상,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배양’ 이었다. 한편, 스스로 사고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향상된 그룹에서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 멘토 학생이 문제해결식 보다는 사고형 멘토링을 했기 때문이었다. 멘토링을 진행상 어려웠던 점은 멘토확보 문제, 멘토가 없이 1학년끼리 회계스터디를 한 경우에 어려운 문제해결이 어렵고 통제할 사람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시간조정 및 장소 확보문제로 나타났다.

멘토링을 하기 전에는 회계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멘토링을 진행해 나가면서 ‘회계에 대한 이러한 막연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분야구나’ 라는 자신감과 전공에 대한 확신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대부분 이었다.

학생들은 혼자 공부하면서 가지게 되는 편견과 왜곡된 생각을 토론을 통해 바로잡았으며, 알고 있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혼자 공부할 때는 모르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토론을 통해 바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선배 멘토의 동기부여를 통해 학습에 적극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10명의 멘티 학생 중 9명은 향후에 회계멘토링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회계기초 멘토링은 회계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없애고 회계학습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회계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도 멘토링을 하다보면 자신감도 생겨난다, 회계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멘토링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 공부하는 것이 회계학습에는 더 맞는 방법이다, ‘회계는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멘토링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얻는게 매우 많아진다’ 라고 응답하였다.

<Table 5> Mentor's presence, dispositions, personnel and learning effects

	- ① presence / dispositions / personnel - ② learning effects and problems
- 1 group	- ① existence / problem solving type / 3 - ②passive learning / clear concept theorem
- 2 group	- ① Existence / problem solving type / 1 - ② man to man / passive learning

- 3 group	- ① existence / thinking type / 3 - ② clear concept / autonomous learning
- 4 group	- ① absence / - / 4 - ② hard problem solving / weak stimulus
- 5 group	- ① absence / - / 3 - ② good leader mentee / hard problem solving

위의 <Table 5>는 멘토링의 효과는 멘토의 존재여부, 성향, 멘티의 구성과 인원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회계학에 대해 어려움과 난해함을 가진 회계 기초 학습자에게는 멘토의 존재와 성향이 회계에 대한 자신감과 이해도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면담결과 멘티들의 멘토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으며, 멘토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멘티들의 적극적인 학습태도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학습장애 및 학습동기 유발요인 도출

개별 면담 및 연구자의 강의경험을 토대로 회계 기초 학습 장애요인과 학습동기 유발요인을 <Table 6>과 같이 도출해 낼 수 있었다.

<Table 6> Study disturbing & induction factors

disturbing factors on accounting basic st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ck of clear target - burden on accounting - no mentor to meet easily rote learning - insufficient preparations and review - unclear lecture notes - interrupted study during vacation closed lecture - bad accounting textbook
induction factors on accounting basic st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r target on accounting - intimacy with accounting - mentor to meet easily - lively and autonomous study group - sufficient preparations and review - clear lecture notes - continuative study during vacation open lecture - good accounting textbook

4. 결론 :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 모델의 제안

4.1 스터디 그룹을 통한 참다운 배움에 도달함

연구자가 멘토모집을 위해 2-3학년 중 회계학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할 의

향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대부분은 비록 회계학을 접해 보지 못한 1학년 후배들이라 할지라도 부담스럽다는 뜻을 내비추었다. 연구자들도 예상한 일이었지만 잘 설득하여 5명의 학생들을 멘토로 선발하였다. 5명의 멘토들이 스터디 그룹을 리더해 나가면서 겪은 어려움과 보람 등을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멘토들은 이 활동을 통해 지식이 향상되었고, 멘티들과 상호작용을 해 나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다음에도 멘토로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시간조정과 멘티의 의욕저하를 통제하기가 힘들었으며, 사전 학습과 적극적인 멘티의 학습태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4.2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 모델

<Table 6>에서와 같이 회계 기초 학습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은 다양하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회계의 사회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기 보다는 회계전문가라는 피상적인 지위와 가치에 매료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계를 가르치는 교강사들은 회계의 역할과 기능뿐 아니라 분명한 직업관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회계 기초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학습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지식체계에 대해 두려움을 지닌 초보자들에게는 충분한 토론과정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고 추론하도록 하는 교수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대학교 2-3학년 학생에게 멘토의 지위를 부여한 회계 기초 멘토링 프로그램은 새로운 시도이다. 멘토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회계적 개념을 설명하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멘티들과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만들었다. 회계도 하나의 언어이므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여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입식 교육법에 훈련된 학생들이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는 국제회계기준의 환경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인간관계는 결국 소통의 문제이며 원활한 소통은 적절한 언어를 상황에 맞게 구사할 때 가능해진다. 기업의 언어인 회계를 잘 배우고 익혀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회계교육의 사명이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멘토링 학습법에 대한 심층면담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따라서 향후 회계학 학습법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계량적 연구가 보완된다면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G. R. Lee, "Guide of the Bible for CPA' Professional identity recovery", Faith & Scholarship, Vol. 10, No. 2, pp. 145-168, 2005.
- [2] Symposium on Accounting Teaching Reform, "Direction and Strategy of Accounting Teaching Reform", KAA, 2001.
- [3] G. Y. Jung, "Role of Accounting and Education in Social Developments", AIR, Vol. 20, pp. 59-83, 2002.
- [4] S. M. Baik,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Accounting Education Program for Education-Oriented University", KJAR, Vol. 19, No. 2, pp. 273-295, 2014.
- [5] D. J. Jung, K. S. Bae,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K-IFRS", KIAR, Vol. 38, pp. 363-388, 2011.
- [6] H. G. Shin, H. S. Kim, C. G. Choi, FBT Understanding of Financial Accounting, Tamjin, 2016.
- [7] Hitchcock & Hughes, "Research and the Teachers: A Qualitative Introduction to School-Based Research",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44, No. 3, pp. 347-348, 1996.
- [8] KAI, KASB,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2011.
- [9] Maeil Business, Soong Hee Han, "Learning Revolution Report", 2000.
- [10] J. G. Kim, "A Study on Class Cases using Havruta", Baekseok University, EAC, 2016.
- [11] D. K. Kim, "A Study on the Competition Improvement of Accounting Education", Daehan Journal of Business, Vol. 18, pp. 295-314, 1998.
- [12] J. E. Kim, "An Analysis on Accounting Education Satisfaction", Daehan Journal of Business, Vol. 21, No. 1, pp. 249-279, 2016.
- [13] S. R. Oh, "A Study on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in Accounting Education", JKCA, Vol. 16, No. 10, pp. 72-80, 2016.
- [14] I. S. Choi, "Effective Accounting Education", KJAR, Vol.10, No.2, pp.69-92, 2005.
- [15] T. J. Kim, "The introduction of IFRS in accounting

for the Study of Education", BEJ, Vol. 20, pp. 77-106, 2011.

저자소개

이 경 락(Gyeong-Rak, Lee)

[정회원]



- 1999년 8월 :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세무회계 전공 (경영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회계원리 교육, 회계전문직의 직업적 윤리